

일주문



복지재단 신년업무보고회
진각종 트리원장 회정 정사는 1월 17일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경남지역본부 창립
생남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연 스님은 1월 29일 오후 2시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본부 창립법회를 개최한다.(02)734-8050



화계사 일요법회서 법문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일요특별초정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02)902-2663



조계사 목조불 점안식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2월 2일 오전 8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목조 석가모니불 점안식을 봉행한다.(02)732-2183



서울 작조사 주지에
前 법어사 승가대 강주 대각 스님은 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안 스님으로부터 서울 문암동 작조사 주지 임명장을 받았다.



대승종 중정 취임법회
대한불교 대승종 중정 천광 스님은 1월 30일 영천시 완산동 수덕례당 2층에서 열리는 취임법회에서 대승종 5세 중정에 취임한다.(051)638-4088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이 12월 29일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교화 활동을 펼쳐왔다.



호계원 사무처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태연 스님(서울 약사사 주지)은 1월 17일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보현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인복지센터 재수탁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안 스님은 1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시설 재수탁을 받아 향후 3년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서재영 연구교수는 1월 18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 선임연구원에 임명됐다.

2007년을 뛰는 불자

김희욱 - 교단자정센터 대표

“교단 전체가 자자·포살 정신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난해 공주 마곡사 주지 구속 사태에 이어 올해 초 서울 적조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 등 불교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불교계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

센터 김희욱 대표(사진)의 분석이다. 불교계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이 교단자정센터다. 교단자정센터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낱선 목소리를 냈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법 스님의 납골당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중앙종회의원 당선을 무산시켰던 교단자정센터는, 마곡사 건에 대해서도 '제3의 조사기구 설치'를 조계종에 제안한 상태다.

방식인 '자자(自恣)'와 '포살(佈薩)'에 근거하고 있다. 사부대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풍을 만들고, 근본적인 의식이 변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단지원활동 △모니터 활동 △교단자정의 전화 운영 △수행환경 조성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사후약방문" 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김 대표는 스님 개인의 '지계(持戒)'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호법부 등 종단 사정기관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올해 △총무원·중앙종회 정책 모니터링 △국교보조금 등 공직재원 관련 부정부패조사처리 △현법 스님·마곡사·불교중앙박물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욱 대표는 "승가에서 재가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며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재가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단이 사부대중이 아닌 비구·



비구니 중심의 이부대중, 특히 비구 중심이 된 것에는 재가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김 대표는 "진정한 사부대중이 되기 위해서는 재가자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교문화·포교의 원동력 기를 터”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신임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지부와 전국에 포진한 99개 지회의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형성과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한 불법 홍보의 원동력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회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스님과 재가 불자가 부지기수로 많은 게 현실이다. 불교청년회가 적극적으로 대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 홍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대학 등을 통해 청년 불자들에게 올바른 인격형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1월 28일 대한불교청년회 제24대 회장 취임을 앞둔 대한불교청년회연수원 박법수 원장. 취임식에 앞서 박법수 신임회장(사진)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이념으로 시대·역사적 청년의 사명감으로 불교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청년

템플스테이 등 통일추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대한불교청년회가 이룩한 다양한 포교 및 교육활동의 성과는 괄목할만 하더라도 이에 못지않게 그동안 걸어온 역사와 지극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냉철하게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대한불교청년회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벌여왔지만 사회적 반향과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작게는 불교계에서 크게는 사회와 국가 앞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실천목표로 박 회장은 △전국 108 사찰 답사(자원봉사 및 대한불교청년회 홍보) △다양한 신행·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꼽았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태고종 충북 중무원장 취임법회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는 1월 17일 청주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제13대 중무원장 원해 스님과 부중무원장 광해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중무원장인 원해 스님은 "의식개혁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생활불교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입종 신년하례 및 시무법회



불입종(총무원장 경암)은 1월 11일 불입종 흥분산 송화사에서 종정 면월 스님과 총무원장 경암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 및 시무법회를 봉행했다. 면월 종정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신심과 원력을 갖춘 승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수행정진 하라"고 당부했다.

수행·포교 강화로 전북불교 'UP'

총무원장 표창 받은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훈신을 다해 포교와 정진에 힘쓰고 있는 불자가 많은데 재가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말고 열심히 하라는 재직으로 알고 지역 불교 발전에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1월 15일 전북불교 신년하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75·청광·사진)회장은 "게으르지

밝혔다. 김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재가불자라 할 수 있다"며 "신도회가 2개월에 한 번씩 마련하는 고승초정법회를 빠른 시일 내에 1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세가 약한 전북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행,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도조직을 강화하고 신바람 나는 신행생활이 되도록 하겠다"고 신년계획을 소개했다.

이준엽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창립 1주년 법회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지원장 이영숙)은 1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 회락장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및 바자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해종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영숙 지원장은 "부산·경남 지역 여성불자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Korean Buddhist Traditional Education 2007 9th New Student and Transfer Student Recruitment'. It lists various courses like Buddhist Law, Buddhist History, and Buddhist Culture,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eung-gong Sunim.